

청소년의 음주문제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설립

1. 청소년 음주의 실태와 대응



조 성 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예방치료본부장)

청소년의 음주가 늘어나고 그로 인한 문제들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은 매우 부족하다. 최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와 지역사회의 알코올 상담센터들, 대학생 알코올문제 예방협회 등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있는 기관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2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한 주류전문소매점제도를 계기로 청소년 알코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전문가 사회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적 논의도 자주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과연 논의의 계기가 진정하게 청소년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에도 다소 의문이 생긴다. 청소년의 음주예방에 대해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은 매우 부족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문명권의 국가 중 미성년자 음주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청소년 음주를 막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다. 중학생의 57.7%, 고등학생의 85.0%,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의 75%가 음주경험이 있으며, 지난 한달 동안에 5잔

■ 목 차 ■

1. 청소년 음주의 실태와 대응
2. 청소년 음주의 원인과 예방정책
3.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청소년 음주예방활동
4. 청소년 음주의 효과적 예방방안

이상의 술을 마신 청소년도 30.0%나 되고있다 (대한주류공업협회, 1997).

더욱이 청소년의 67.0%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12세 이전에 제사나 명절날 가족들과 맞보는 정도를 넘어 일반적인 음주를 시작하고 있는 청소년이 15.3%나 된다. 심지어 초등학교생의 50%가 음주를 경험한 것도 놀라운 사실이며, 청소년 전반에 걸친 음주율의 급증세는 더욱 우려가 되는 일이다.

청소년기의 음주는 정상적인 발육을 막고, 안전과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뿐만 아니라 기타 약물에 대해 접근성을 높여 비행과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인다. 그 결과 건전한 인격체로의 발전을 막아 사회적, 심리적, 법적 폐해가 커지게 된다. 저연령화, 흉포화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 비행, 자살, 학교 부적응 등의 결과도 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제로 상습음주 청소년의 음주 후 범죄율은 18.3%에 달해 심각성을 입증한다(윤혜미, 1999).

청소년 음주를 줄이는 대책은 대별하면 정책적 규제와 예방활동이 있다. 정책은 주세정책, 정보제공, 마스크를 통한 광고, 접근성 통제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 음주운전 등 사고에 직접 대응하는 것, 알코올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 등이 있다.

사실 정책의 문제는 새로운 정책의 제정 여부에 있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이 얼마나 지켜지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술 구입 및 판매가 불법화되고 있으며, 동법 56조의 벌칙에서 규정 위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미성년자 보호법'에서도 주류판매자와 고용인은 미성년자에게 음주할 것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

되어있고, 영업장 출입허용금지 조항도 있다. 물론 강력한 벌칙이 위반자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전국민의 문제인식 미흡 등으로 인해 정부와 민간차원의 예방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보건소, 국공립 정신병원, 정신보건센터 등은 주로 치료재활 차원의 사업만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활동까지는 역부족이다. 1997년 대학교수들과 대학생들에 의해 설립된 민간단체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 예방협회'가 학교차원의 예방활동을 전개한 지 이제 4년이 지나고 있을 뿐이며, 대학 내 '학생생활연구소'로 활동이 일부 파급되기 시작한 것도 금년도의 일이다.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제정된 정책의 유효성 문제와 예방활동의 체계적 전개문제는 미결의 과제로 남아있다.

2 청소년 음주의 원인과 예방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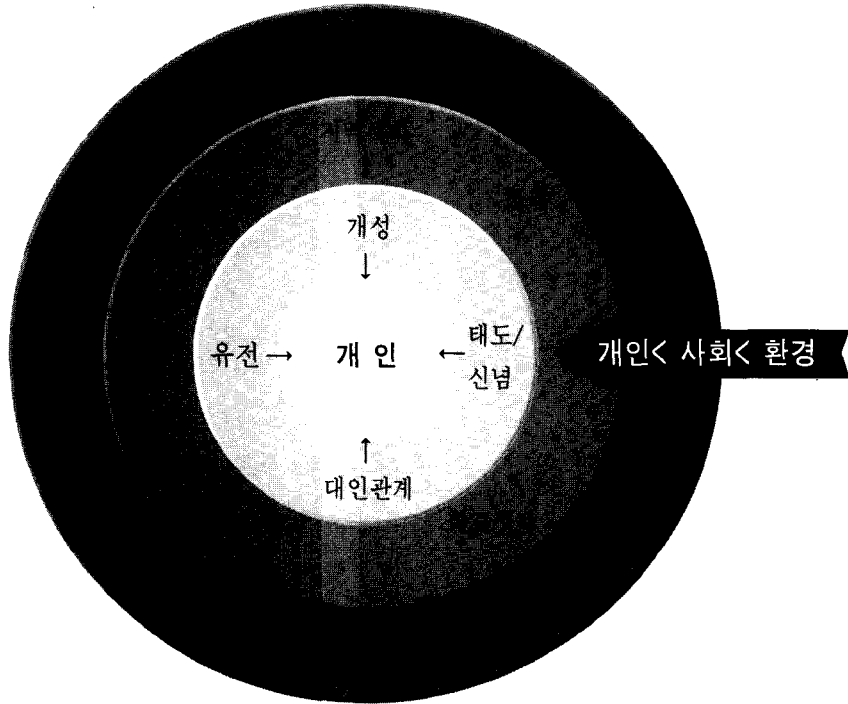
청소년음주의 예방은 단순한 접근방식으로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는 청소년 음주의 원인이 다양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예방정책이 단순해서는 효과성이 적거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개개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음주를 하게 되고 그 원인이 다양하므로 그 대응책도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또래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예방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음주를 자주 미화하는 마스크의 활동, 법적 금주연령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유효성 등 환경요인이 불변한다면 교육의 성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가정, 청소년 관심시설, 자치단체, 알코올 센터, 보건소들 간의 전달체계가

〈표 1〉

청소년 음주에 대한 영향요인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도 예방활동의 효과는 매우 적을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서 특정기관의 독자적인 활동이 아닌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 음주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청소년의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인의 특성, 의사소통기술, 가족의 역사, 알코올에 대한 태도와 신념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이 있으며, 부모 등 개인의 처지를 결정짓는 요인과 학교의 정책, 또래, 지역사회의 영향 등 사회적 요인, 가격, 음주규제 연령, TV광고 및 드라마에서의 음주미화, 술의 마케팅 등 법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과 관계된 환경요인들이 있다(표1 참조).

이 같은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요인이 원인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은 청소년 음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이 소위 포괄적이고 시스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정부나 민간에서 예방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통상 환경요인을 무시하고 개인적 차원의 요인들에 대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한 대응처방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시스템적 접근을 하지 않을 경우 효과는 일시적일 뿐 곧 사라지고 만다.

즉,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고등학생이 문제인가? 초등학생도 문제인가?”, “부분적인 문제인가? 전체적인 문제인가?”, “여학생이 문제인가? 남학생이 문제인가?”, “음주량이 문제인가? 음주빈도가 문제인가?”, “정책의 부재가 문제인가? 정책의 유효성이 문제인가?”, “또한 그 문제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등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정책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물론 정책의 유효기간에 대한 정보도 고려 대상이 된다.

통상 유효한 것으로 입증된 정책은 개인차원의 정책, 또래집단에 중점을 둔 정책, 부모에 초점을 둔 정책, 학교 차원의 정책, 학생지원 프로그램, 교사에 대한 정책, 마스크와 관련된 예방정책, 법적 규제를 통한 예방정책 등인 바(U.S. DHHS, 1989),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이나 국가의 정보를 수취, 분석할 필요도 있다.

3.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청소년 음주예방활동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2000년 4월에 설립된 순수민간 공익재단법인으로 주류소비자 보호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주류제조업자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주류공업협회가 별도법인으로 설립한 것이다. 대한주류공업협회는 일찌기 1996년 12월, 주류제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의지의 반영으로 건전음주문화 정착, 알코올 문제 예방 및 치료재활을 실행하는 주류소비자보호사업을 결정하였다(대한주류공업협회, 1997).

청소년 음주예방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대한주류공업협회는 1998년, 전국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청소년과 대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음주문제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소위 종합적 진단을 하고 처방전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같은 해에 정

보제공을 통한 인식제고 사업으로 “청소년 음주, 아직은 안돼!”라는 제목의 스티커를 전국의 학교, 도서관, 소매점, 식당 등 청소년 밀집 지역에 부착하였다.

1999년에는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대학생으로 타겟군을 분리하여 예방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청소년의 경우 “금주(Total Abstinence)”를, 대학생의 경우 “책임음주(Responsible Drinking)”를 강조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에서였다.

예를 들면 대학생의 권장음주량을 남학생은 4잔, 여학생은 2잔 정도를 표준 권장 음주량으로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경우도 실제로는 학생들이 금주정책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폐해 감축(Harm Reduction)등의 다른 목표를 선택하기는 어려웠다. 1999년도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된 첫 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 인식 주간행사, 이벤트를 통한 고등학교 알코올 문제예방행사, 대학생 리더의 양성 등 다양한 예방모델이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방사업은 2000년 4월 이후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건립으로 본격화되고 전문화되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청소년음주 예방모델의 사업내역은 홍보, 교육, 교재개발, 정책 및 예방활동, 지원 및 개입, 연구조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실행 주체로서 개인, 또래리더, 교사와 교수,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및 정부가 참여하는 것으로 구축하였다(표 2 참조)

홍보활동은 술과 음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정보전략으로서 채택되었다. 교육사업은 대상 타겟의 구체적인 행동변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목표설정기술, 의사결정기술, 저항기술,

〈표 2〉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청소년 음주 예방모델

		개인	또래리더	교사/교수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정부
홍보	자료	브로셔, 포스터, 스티커, 티셔츠, 카드, 홈페이지, 이 메일 등						지원
	활동	캠페인, 방송, 신문보도, 학보, 가두배포, 정보키오스크, 반상회, 인식주간 등						
교육	강연 집단토론	강연 집단토론	교육	신입생 OT, 특강, 생활관	부모교육	강연	정책제안	
훈련	자원봉사자	리더십훈련	지도	지원	부모훈련	지도자훈련, 술집종사원 교육	지원	
교재개발	자존향상, 거절방법, 대안활동	지도자자질, 설득방법	학생 지도법, 생활기술훈련	지원	대화법, 교정법	건전 음주 음주운전 예방	지원	
정책/ 활동	여론조성	청원활동	여론조성 정책대안	학칙개정, 교내광고제한, 금주공간확대, 교과목 설치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주류 판매 감시, 법령, 규칙강화, 음주제한 연령, 음주운전 금지, 술광고 금지, 영업시간, 주세 등			
평가	사전조사, 사후조사, 과정평가, 사례평가, 프로그램 평가, 파일 관리							
지원/개입	상담 조기치료	집단상담 치료	실태조사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 사례지 도상담, 교직 원 음주문제 상담, 치료	지원	부모상담, 치료	지원 (상담, 치료, 정책 지원)		
연구조사	청소년, 대학생실태조사, 예방이론 및 기술개발, 평가방법개발, 자원조성							

스트레스 극복기술, 원조기술, 사회기술 훈련 전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교재개발은 교육과 훈련을 위해 목적, 대상, 효과, 실행과정과 평가, 기대효과, 실험 및 전파계획, 평가 및 프로그램 조정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재를 출판 배포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이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비전 중 사회개발과 관련된 것이다.

정책은 특히 청소년의 음주를 근절하고 대

학생의 음주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부처 및 국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실행 전과 후의 평가를 통해 수정 및 예방정책의 수립자료의 제작,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를 사업에 포함시켰다. 지원 및 개입은 치료재활사업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성인아이 등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이 큰 타겟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된 예방모델을 기반으로 한 1999년-2000년 기간 중의 예방활동은 실로 우리나라 예방 정책 및 활동사에 없었던 다양성과 포괄성을 병행한 의미있는 것이었다<표3 참조>. 학교차원의 영역을 넘어 지역사회에 소재한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Bacchus Korea), 까리따스 알코올상담센터, 이미형 알코올상담센터, 광주 알코올상담센터, 대구가톨릭 알코올상담센터 등 파트너 기관들과 직접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들은 각기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전국적인 연결망을 동원하여 시스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도를 한 것이었다.

청소년, 부모들에게 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음주”와 “우리아가 술을?” 등의 리플렛, “청소년음주, 때가 있습니다.”, “날 오염시키지마”, “바보들의 행진

계속되어야 하나?“, “미래의 무대에 무엇으로 우뚝 서고 싶습니까?” 등의 포스터, 음주게임과 또래압력의 위험을 경고하는 비디오 “아니? 아니!”를 제작, 전국적으로 배포하였다.

교육훈련으로는 인천 서곶 중학교와 서울 영락고등학교에서 또래집단의 음주강요 대처 훈련, 자존감 형성 및 의사결정기술, 거절기술 등 사회기술, 문제해결능력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또래리더들을 양성하는 사업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2차례에 걸쳐 120명의 리더를 양성하였다. 2년간 양성된 리더는 총 250명에 달하며 전국의 대학에 산재해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음주의 핵심요인 중 하나인 또래압력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캠페인 사업으로 롯데월드에서 '코드카 드림 콘서트'를 2차례 실시하였고, 일산호수공원, 대학로 등 다양한 청소년

<표 3> 1999-2000년 기간 중의 청소년 대학생 음주문제 예방사업

구 분	프로그램 내용	청소년	대학생
정보자료 제공	리플렛 제작	▶ 학부모대처방법 ▶ 청소년 음주(2종)	▶ 리플렛 ▶ 여대생용 리플렛
	포스터 제작	▶ 5종	▶ 3종
	비디오 제작	▶ 예방비디오 "아니! 아니?"	▶ 타기관 제작자료지원
교육훈련	교육훈련	▶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내 교육훈련 실시(COPE)	▶ 생활관프로그램
	또래 리더 양성	▶ Teen Plus 프로그램 개발	▶ 대학생 리더양성 ▶ 캠퍼스클럽 결성
	지역사회교육	▶ 재활상담센터에서 성인아이 교육 실시	
이벤트	알코올인식제고 행사	▶ 학교, 공원, 롯데월드에서 Fun & Learn 활동	▶ 알코올 인식주간
연구조사	음주실태 조사	▶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부모, 교사 조사	▶ 전국 대학생 조사

년 밀집지역에서 시행하여 효과성을 실험하였다. 교통방송, 스포츠 투데이 등 음주운전 및 청소년영향력이 큰 언론 및 방송 매체와 연대하여, 예방 캠페인사업을 6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지속성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대학생을 위한 행사도 알코올 인식을 개선시키고, 건전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식주간 행사를 성균관대, 중앙대, 충북대 등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동료집단의 음주강요에 대한 대처방법 훈련, 지도자 개발 및 자조활동을 유도하는 과정도 개설하였다. 또한 기초 연구조사로서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방정책의 마련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향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행주체가 학생 위주에서 부모, 조부모, 교사, 주부 등으로 프로그램의 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정부와의 연계활동을 위해 보건소,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알코올 중독자 단체 등과 다양한 연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래리더 양성사업도 대학생에서 초, 중, 고등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생활관 프로그램 등 신규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실험을 시도할 계획이다. 교육사업도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의 고3생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활동과 예방전문가 양성과정, 학생지원 프로그램(Student Assistance Program) 등을 추가하여 다양성을 추가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사업은 예방이론과 정책의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우리사회에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과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4. 청소년 음주의 효과적 예방방안

현실적으로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을 위해 활용될 자원에 제약이 있으므로 다양한 사업 대상 중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예방사업 중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 정책들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다.

편익과 비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표 4 참조>,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 가능한 정책은 가격정책, 정보제공, 매스컴을 활용한 광고, 술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하는 이용측면의 정책이다.

그 중 가격정책은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성인과 청소년 시장의 분할

〈표 4〉 알코올 문제 예방정책의 편익과 비용분석

정 책		편 익		비 용	
		개인	사회	직접	간접
전체 인구	주세	높음	높음	낮음	가변적
	정보	증거없음	증거없음	높음	낮음
	광고	낮음	낮음	중간	중간
	이용	중간	중간	중간	중간
문제대응		중간	중간	가변	중간
직접개입		가변적	가변적	중간	중간

곤란, 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선택이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정보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정책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으나 정보모델의 유용성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정책이다.

청소년이 술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정책은 효과성이 중간정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가용한 정책수단이 된다.

무엇보다도 각종사고 등 음주로 인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효과가 당장에 나타난다는 이유로 자주 활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도 단일 정책이 독립적으로 시도되었을 때에는 유효성이 부분적이거나 무효하였다는 경험적 자료들이 많으므로 실행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음주가능연령을 21세로 상향조정하였지만, 동시에 '음주운전을 막는 어머니 모임'의 적극적인 활동이 동시에 추진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BAC) 규제의 강화 등의 정책수단이 복합적으로 시행되었을 때야 그 정책의 효과가 발생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음주예방은 법적 규제 강화정책에 그쳐서는 효과가 의문시되고, 당사자 교육, 또래리더의 양성, 학교 정책의 강화, 지역사회 대안문화 공간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효과적일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개입하는 예방활동은 문제가 발전된 다음에 개입하는 것 보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든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무엇보다도 항상 유의해야 할 문제는 수립된 정책의 실현과 정책 논리적 일관성 등이다. 현단계 우리나라의 청소년관계 보호법은

법적 실효성 측면의 문제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법적 규제인 전문소매점제도의 도입도 준비단계부터 찬반논란이 거세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주류전문소매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청소년 음주문제를 문제로서 제기하는 것 이상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전문소매업 제도는 정책적 유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인데, 청소년 음주 예방사업의 전개문제, 청소년의 출입을 방관하는 유흥업소의 문제, 전문소매점에서의 저도주 판매문제 등 관련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유효성을 거의 예측하기 어렵다.

청소년이 주로 술을 마시는 장소가 호프집, 소주방, 카페, 레스토랑 등 일반음식점(39.4%)과 가요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18.7%), 포장마차(14.2%), 단란주점(0.6%) 등이라는 점, "주류전문소매점 제도가 도입 되더라도 5도 이상의 술을 마시고 싶을 때 유흥업소나 일반음식점 등 다른 곳에서 사 마시겠다(61.9%)"고 하거나 "가까운 가게에서 맥주 등 저도주를 사서 마시겠다(31.0%)"고 청소년의 대부분이 응답하고 있는 점 등도 전문소매점 제도가 미미한 효과이외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다(이창원, 2001).

결론적으로 청소년 음주문제를 유효하게 예방하려면 다양한 정책이 동시병진되어야 하고, 전달체계내의 실행주체들이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예방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 스스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홍보계획 또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은 청소년

당사자의 교육뿐이 아니라 소매점과 술집종사자 대상 교육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교육에 대해 소매점의 70.8%가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부모의 86.0%가 음주예방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에 대해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조사연구 자료의 생성과 누적적 축적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데이터의 부족은 정책의 빈곤을 낳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효과적인 청소년음주문제 예방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비용효과성을 보장하는 정책의 우선 순위 연구조사에 근거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이 처음 술을 마신 이유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교육의 주제, 유형과 대상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연령별 통계는 음주예방의 타겟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음주예방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임은 분명한 일이지만 과학적 정보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근본적 원리를 찾아내어 대응할 때 시행착오도 적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대한주류공업협회 · 한국생산성본부, 『주류 소비자보호사업계획』, 1997.9
2. 윤혜미, "청소년 음주실태와 예방프로그램",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알코올문제 예방세미나』, 대한주류공업협회, 1999.12.
3. 이 창원, "주류전문소매점제도 도입효과 및 문제점", 『주류전문소매점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토론회』, 대한주류공업협회, 2001. 3. pp.35-85.
4. Harold D. Holder and G. Edwards ed., Alcohol and Public Policy, Oxford, 1995.
5. U.S. DHHS, Prevention Plus 2 - Tools for Creating and Sustaining Drug Free Communities, 1989.